

일 주 문



대구사원주지연 성도절 기념법회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은 구립 27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선재동자의 겨울나들이'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1월 17-18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초등법회 '선재동자의 겨울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02)732-2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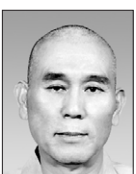
도산 스님 천태종 종의회 의장 선출
대구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1월 4일 단양 구인사 입교법회장에서 열린 천태종 제14대 개원총회에서 종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봉은사 설날 합동차례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월 26일 오전 5시 30분-오후 4시 30분 지정전, 대웅전, 총명각 등에서 설날 합동차례를 실시한다. (02)3218-4801



응각 스님 백양사 강주 부임
응각 스님은 1월 7일 정장 백양사 강주로 부임했다.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윤기 스님에게 전강받은 후 수덕사 불국사 강주를 역임했다.



교정발전 공로 법무부장관 표창
현문정사 주지 현문 스님은 구립 31일 안양교도소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행정 발전 공로 표창을 받았다.



한나라당불자회 지관 스님 예방
한나라당불자회 이해봉 회장은 송광호·정갑윤 부회장, 조문환 간사 등과 함께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한국불교아동문화회 회장
김종상 아동문화가는 1월 2일 한국불교아동문화회 신입회장에 취임했다. 김회장은 한국사상협회 회장, 국제펜클럽 부이사장도 역임하고 있다.

인사 - 연합포교사 평가 수석

박무용 포교사(동산불교대학·사진)는 구립 7일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가 실시한 제7회 연합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에서 수석 합격했다. 제7회 합격자는 총 71명으로 품수식은 3월 21-2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사회통합·종교차별 해소에 기여할 터”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

“10·27법난은 그 시대 살았던 모든 이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도 피해로 고통받는 스님들과 관련자 상처 치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원학 스님은 “피해 및 명예회복으로 과거아픔을 딛고 사회통합과 종교차별 극복해소에 기여하겠다”며 위원회 출범을 밝혔다.

원학 스님은 “1980년 신군부는 군·경 3만2000명을 투입해 전국사찰 5731곳을 수색, 스님 153명을 연행해 가혹행위와 고문을 지행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범죄·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위상이 훼손돼 그 피해는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어 “불교계는 비단 1980년에만 법난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일제가 불교 통제를 위해 만든 사찰령의 잔재가 각종 불교규제법령으로 남아있고, 사회 곳곳의 제도과 관습에서 여전히 종교편향과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며 “28년 동안 모진 고통과 아픔에도 불법 정진해온 모든 사부대중 노고에 감사하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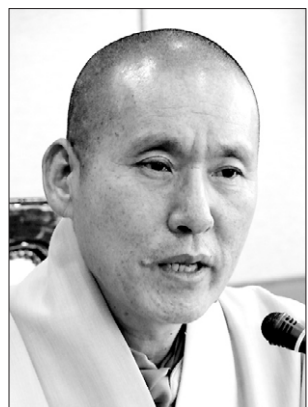
2년 기간의 특별위원회는 △피해자 접수·심의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명예회복 기념행사·역사자료관 건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원학 스님은 “2년이라는 한정된 위원회 활동에 비해 늦게 정부로부터 위촉 및 구성이 진행돼 1차 기간연장을 고려중”이라며 “1월 21일 홍산 전장기념관에 실무진 및 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위원회의 발빠른 행보를 알렸다.

원학 스님은 “10·27법난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던 거창, 노근리, 제주 4·3 등과 달리 전국에서 벌어졌다는 점과 성직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며 “대부분 스님들은 개인의 금전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후세에 주지시키기 위해 역사·사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 정부도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종교화합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수립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27법난에 대한 정부 대응은 1988년 김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서로 국가 책임을 인정, 국민사과 한 바 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임기 중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첫 심의위원회 회의에는 구립 30일 위촉된 원학 스님, 세영 스님(조계종 10·27추진위원)과 김종천 국방부 차관, 임재식 경찰청 차관,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조남진 위원, 이명목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원학 스님은 “10·27법난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던 거창, 노근리, 제주 4·3 등과 달리 전국에서 벌어졌다는 점과 성직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며 “대부분 스님들은 개인의 금전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후세에 주지시키기 위해 역사·사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 정부도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종교화합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수립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27법난에 대한 정부 대응은 1988년 김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서로 국가 책임을 인정, 국민사과 한 바 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임기 중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첫 심의위원회 회의에는 구립 30일 위촉된 원학 스님, 세영 스님(조계종 10·27추진위원)과 김종천 국방부 차관, 임재식 경찰청 차관,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조남진 위원, 이명목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와 전법에 진력”

대불련 제47년차 회장 이경환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법우들은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대불련 법우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겠습니다.”

대불련 제47년차 회장에 선출된 이경환(25·충남대 선박해양공학·사진)씨는 새해 초부터 활동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이경환 회장은 “대불련 사무실이 지난해 말 전법회관으로 이전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대불련 활동의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6년간 펼쳐온 법우들의 패기와 열정있는 포교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전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불련은 2009년 3가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회 지부 활동

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대불련 활동의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6년간 펼쳐온 법우들의 패기와 열정있는 포교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전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불련은 2009년 3가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회 지부 활동

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대불련 활동의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6년간 펼쳐온 법우들의 패기와 열정있는 포교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전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불련은 2009년 3가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회 지부 활동

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대불련 활동의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6년간 펼쳐온 법우들의 패기와 열정있는 포교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전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불련은 2009년 3가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회 지부 활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불자 지도자로서의 지도력 배양 프로그램 마련 △지역 법우들의 스펀디 소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라 대학 캠퍼스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대학재단의 70%가량이 타종교인 상황에서 불교계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50개 지회의 활성화와 공간 문제 해결, 3000여 법우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간사 확보, 종단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불련 활동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이 회장은 “진정한 자아를 찾지도 못한 채 학점과 이력 쌓기에만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불련 활동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이 회장은 “진정한 자아를 찾지도 못한 채 학점과 이력 쌓기에만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불련 활동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이 회장은 “진정한 자아를 찾지도 못한 채 학점과 이력 쌓기에만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불련 활동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이 회장은 “진정한 자아를 찾지도 못한 채 학점과 이력 쌓기에만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동원 스님·홍창원씨 ‘단청장’

문화재청 구립 23일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경민)은 구립 23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동원 스님(양산 통도사 사명암·사진 왼쪽)과 홍창원 이사장(단청연구원·사진 오른쪽)을 단청장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인정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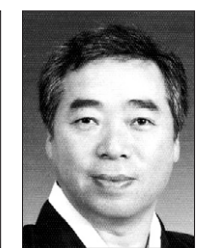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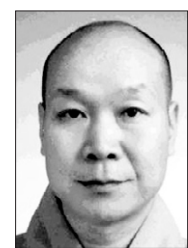
동원 스님은 前 보유자였던 해각 스님의 단청 특성을 충실히 계승하고 전승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지조사차 스님을 찾았던 전문가는 “동원 스님은 현지조사 시 기량 및 작품 예술성 등 두

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홍창원 이사장은 前 보유자 故 만봉 스님의 단청 기능을 전수받았다. 홍 이사장은 스승의 독특한 단청문양 요소를 충실히 계승하면서 사찰 궁궐 단청을 맡아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동원 스님과 홍창원 이사장의 단청장 보유자 인정 예고를 통해 스승의

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홍창원 이사장은 前 보유자 故 만봉 스님의 단청 기능을 전수받았다. 홍 이사장은 스승의 독특한 단청문양 요소를 충실히 계승하면서 사찰 궁궐 단청을 맡아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동원 스님과 홍창원 이사장의 단청장 보유자 인정 예고를 통해 스승의



맥을 잇고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다문화가정 초청법회



모든 법주사주지 노는 1월 1일 다문화가정 초청법회로 새해를 시작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북 보은지역 다문화가정 170여 가구 200여 명이 참여해 새해 첫날 덕국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해철 총정지사장

대한불교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덕우)은 1월 5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총정 지엄 스님은 “한생각이 청정하면 그 육체가 깨끗하고 신령스럽다”며 사비·분발심을 버릴 것을 당부했다. 청운경남부지사장

한국불교미륵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미륵종은 1월 7일 총본산 경남 김해 관음정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대중사 연화 스님, 총무원장 승정 스님, 중앙종회 회장 해월 스님 및 종도스님 120여 명이 동참했다. 영민경남부지사장

한국미륵불교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미륵불교(총정 법련)는 1월 4일 총본산 고성군 대무량사에서 총정 법련, 총무원장 승봉 스님 등과 함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련 스님은 “교만하지도 잘난척 하지도 말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청운경남부지사장

광주온전자불자회 사랑의 껌 수익금 보시



광주온전자불자회(회장 이현만)는 1월 7일 2008년 사랑의 껌 판매수익금 50만원을 생령·농실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소아암 및 난치병어린이 치료에 쓰인다. 양행선 광주전남부지사장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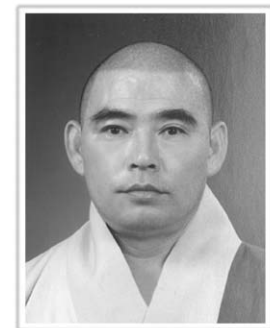
●원동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동방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장사 현오 합장

HTTP://WWW.JI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